

민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검토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4인가구 100만원 지급 5차 지원금 30조 '슈퍼추경'...8·9월 나눠 지급할 듯 신용카드 캐시백 30·50만원 저울질...사용처는 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한도를 당초 거론되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자동차 등 내구재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경 편성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줬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할

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안팎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를 절충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90%에서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안으로 거론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한도 문제도 막판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개인별 캐시백 한도로 30만원을 제한한 가운데 여당은 5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국민 지원금과도 연동된 사안인 만큼 지원금 지급 범위에 따라 절충 소지가 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2차 추경은 30조원 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답변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자 대선출마 원천 봉쇄”

민주 전재수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선관위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했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자가 법에 근거해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검증을 받게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대선후보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의 회견장에 나와 “오늘 발의한 (2가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으로 공직사회가 혁신되길 바란다”며 “내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신문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구) 국회의원이 24일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 광고 홍보매체 선정에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통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통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신문사업자가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 등 신문유통표준 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배포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바탕으로 신문사업 지원과 정부광고 시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 등의 전체 발행 부수 및 유통 판매 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공정하게 신문 발행 부수를 공사하기 위한 ABC제도가 조작과 부정 의혹이 일면 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허위 자료, 부정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도 낮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신문 유통의 전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輿, 언론개혁 드라이브...징벌적 손매제 추진

조선일보 '일러스트 사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다졌다. 반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는 언론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반드시 이달 내에 해당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매제가 왜 필요한지를 조선일보 사태가 국민에게 알려줬다.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는 기사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지. 몇 줄짜리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

에서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조선일보의 모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 언론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언론개혁에 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민 의원은 “비수로 사람을 찌르고 사과한다고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일보는 보도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처벌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정도면 폐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가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홍 의원의 복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이 됐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이라며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일당독주 불통과 내로남불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h3>상가 매매 (상무지구)</h3>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 4천) 임대료료</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가능</p> <p>(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3>장성토지 (분양 매매)</h3> <p>광주에서 20분(6M 도로접)</p> <p>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8660-9801</p>	<h3>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9,190㎡, 느티나무15년생 105주와 7중(소나무, 백일홍, 목련, 뽕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m정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중)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벽재,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향 근접, 교통요지 담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화송리, 계획관리지역 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기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함) 지적강 바라보 마을변방 정남향, 관벽재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적성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 캠핑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면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창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시장 내 점포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어물 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가 <p>※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p>
--	--	---